

**"21세기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는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과  
복음적 병원운영"**

장 덕 필 신부  
(가톨릭병원협회 협회장)



# 21세기의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는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과 복음적 병원운영

(Mission of Catholic Healthcare Inaptitude and  
Hospital Management in gospel Value  
toward Jubilee year)

장 덕 필

(가톨릭병원협회 협회장)

##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인류의 역사 과정에서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기의 역사와 우리의 일생에 한번이며 마지막 역사의 순간을 체험 하게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감회와 새 시대에 대한 미래의 희망을 기대해본다.

21세기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2000년이 되며 또한 복음선포로는 「새 3000년기」가 된다. 성서는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요한3장 1~7절 참조)라고 한 예수와 디고데모와의 대화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철학적이고도 근본적인 영적 가치관으로 인도된 삶의 재생이며 변화를 말한다. 교회는 “인류는 단지 한 세기가 아니라 한 천년기를 넘어서게 될 것”(제삼천년기33항)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21세기의 문턱에 서서, 지난 세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발전으로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하고 아울러 향상된 생산력과 인

권신장을 보면서, 반면에 정치·경제와 과학문명의 기계화에 따라 인간의 삶이 물질화, 상품화된 「인간상실」의 시대였음을 반성케 한다. 또한 신앙의 공동체적 삶도 역사를 통해 「복음적 삶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기업성 교회」로 대형화되면서 다시 복음적 교회로의 변화를 우리는 재조명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분야에서도 「인술(仁術)」이라는 헌신적이고 봉사 적인 히포크라테스 선언정신보다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의료수요 급증과 의료제공의 경제적 원리로 「의료기관은 의료 사업화」로 팽창되었다. 또한 한국 가톨릭 의료기관의 성장과정에서도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이념보다는 「경영관리 위주」의 의료산업으로 변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치열한 의료 경쟁 속에 운영되어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써의 신원을 재확인하고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 의료기관은 이념과 대희년의 정신을 재정립하고 21세기의 2000년 대희년에 나아가 할 가톨릭 의료기관의 복음적 병원운영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기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 II. 성서의 2000년 대희년과 가톨릭 의료 사도직 정신

### 1. 구약에 나타난 희년의 의미

구약의 희년 유래는 레위기(25장~34장 참조)의 희년법에 따라 매해 7년째 안식년에서 7번 안식년을 지내고 50년째 되는 해에 “「거룩한 해」로 선언”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한 것이었다.

-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휴식시키고,
- 빚을 진자에게 탕감해주고,
- 각기 자기 가문으로 돌아가 자기 재산을 되찾게 하고,
- 노예를 자기 가정으로 돌려보내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베풀어준 의도 데로 되돌아가는 뜻이었다. 즉 인간과 사회에 억눌렸던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원상회복」의 정신이었다. 그러나 구약의 희년법은 이상적인 법으로만 머물렀고 현실로는 실천되지 않았다.

### 2. 신약에 나타난 희년의 의미

신약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현으로 2000년 전 당시, 그분의 삶은 하느님의 뜻과 인간 사이에 현실적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

님의 은총의 해로 선포케 하셨다.”

(루카 4장18~19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현실 속에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인간의 삶과 내적 세계에 보다 폭넓고 현실적인 해방과 은사를 베푸는 메시아로 인류에게 오셨다.

따라서 신약의 희년은 주님의 은총의 해로 선포되었다. “죄와 그에 따른 벌을 사해 주는 용서의 해, 대립된 집단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해”(제삼천년기 14항)로 선언되었다.

### 3. 오늘에 있어서 희년의 의미

2000년 대희년 현실의 희년 정신은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의 구세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치에서 조명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탈되었는지를 반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느님 뜻에서 벗어난 인간의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로, 나와 이웃에게 사랑의 복음적 삶의 관계를 찾아 실천하는 「회개의 해」로 보아야 한다.

## III. 가톨릭 의료기관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 복음선포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구, 본당, 수도회, 특수 사목기관 차원에서 고유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활동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뚜렷한 사목 사업 중에 의료사목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사목 하는데 가톨릭 의료기관은 설립 목적을 위한

원칙을 미국 가톨릭 주교단의 사목교서에 서 선언한 「건강과 의료」(1981)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나라와 교구 또는 수도회에 따라 고유한 이념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다음과 같은 공통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1)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육체적, 영성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며 그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목적이다.(마태오 8장 1~4절, 16절, 9장27~31절, 루카 5장17~26참조), 또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전인적 치유봉사로 오늘의 현실에 재현하는 목적이 구현 되어야 한다.
- 2)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봉사적은 초대 교회로부터 역사를 통하여 전승된 사실이다.(루카 10장 8~9절, 마태오 25장 34~40절 참조), 교회는 육체적 고통이나 질병 또는 인격적 면에서 건강과 전인성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활동은 곧 예수의 행위를 따르는 교회의 전통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교회는 병자성사를 통하여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고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온전성에 위안과 힘을 주어왔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사로부터 도움을 얻는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써 힘을 얻고, 악마의 유혹과 죽음의 두려움에 대항하여 강인한 힘을 얻게된다” (병자예식서 6항 참조)
- 3) 교회의 가르침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명이다.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인간으로써 보호 받아야 할 기본권을 교회가 보호하고 보존해

야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개인이나 타인의 건강을 보호해야하고 인간품위에 합당하고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요한23세 지상의 평화 11항 참조)

따라서 교회는 교회 가르침에 따라 인간 복지를 위한 자선의료 제공과 인간 존엄성 보호를 위한 정의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교회는 인간의 참다운 복지에 보탬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나 무감각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인간 복지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 모른 채 할 수 없다.”(요한 바오로 2세, 인간의 구원자 13항 참조)

#### IV.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은 무엇인가?

이념(Mission)은 기관의 신원(Identity)를 밝히는 추구목적(Goal)을 뜻한다.

기관으로서 운영되어야할 차별화 된 평가기준(Criterion)으로 타 기관과 다른 목적을 지닌 기관을 뜻한다.

가톨릭 의료기관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공익을 위한 봉사의 역할을 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은 교구장의 사목지침이나 수도회 헌장에 따라 고유의 이념 내용(Missionstatement)을 다르게 기술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환자에 대한 인격적 치료

가톨릭 의료기관은 현대에 복음적 증거를 위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치유 봉사

직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예수께서는 병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에도 사람을 인격적이고 전인적으로 대하셨다. 이점에 의료봉사직이 근거가 된다. 환자의 권리(Bill of Right)와 환자의 가족에 대한 관심(Concerns for guardians)를 수행해야 한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의료제공은 단순히 기술적 또는 직업적 관점에서 위촉되어서도 안되고, 인간의 모든 요소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요한 바오로 2세 제3차, ARSI회의 훈화)고 강조하셨다.

환자의 인격 존엄성을 존중하고, 질병의 원인 추적을 위해 물리적(육체적), 또는 의학적인 면에서만 국한시키지 말고 복합적인 원인을 찾아 환자를 전인적으로 대해야 할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 2. 의료윤리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인간의 윤리적 원칙을 수호하는데 많은 회의와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인간의 윤리적 가치와 의학발전 사이에 인간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제공과 의학발전을 저해 해야하는 모순적 입장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시대에 따른 의학의 발전에 따라 생명을 누릴 행복권에 침해될 교회의 생명윤리의 선악의 선택 한계에 우리는 분명한 원리성을 증거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한 바오로 2세의 훈화에서 윤리지침을 생각해 보자.

“우리시대의 특징인 기술의 발달은 근본적 양면가치(ambivalence)의 모순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한계

를 넘어섬으로써, 인간의 존재마저 위협할 수 있는 유혹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사실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선악의 기준과 척도가 되는 것은 인간 그 자체이다. 따라서 과학의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의 적용 방법도 모두 인간 존엄성 존중에 기초한 윤리 규범에 의하여 평가되고 통제되어야 한다.”(요한 바오로 2세, 이탈리아 내·외과 의사들에게 대한 훈화, 1980)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써 실천적 의학윤리 규범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료분야와 경영관리나 정책 결정에도 드러나야 할 것이다. 기관 내에 의학윤리위원회, 이념위원회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관리 경영에도 직원들에게도 의학윤리 의식화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 3. 예언자적 역할

가톨릭 의료기관의 예언자적 역할이 현격히 나타나는 역할은 자선진료활동이다.“복음에 입각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실의에 빠진 주빈자, 기아, 소외, 실직, 특히 절망과 인간의 삶을 괴롭히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병폐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표현되어야 한다.”(요한 바오로 2세, 양키 스타디움에서 강론, 1979)고 교회는 강조하고 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정신은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지니셨던 정신이며, 이것은 가난한자의 공동체로 시작한 교회 정신이다. 교회는 「가난한자의 우선 선택」(자유의 전갈, 6장 5항, 1984)은 특히 교황께서 강조하고 있다. 교회의 정신에 따른 의료기관의 역할 중에 자선 의료 활동은 필수적 원칙으로 보며, 특히 경제적이 아닌 정신적, 사회적, 또는 영성적으로 가난한 이

들과 노약자,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원목활동 및 이들에 대한 특수 의료 제공의 활동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 4.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의료인 및 협조자들에 대한 책임

가톨릭 의료기관은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공동체 정신은 공동체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사랑과 친절로 예우해야 하며, 경영자들은 의료를 베푸는 의료인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지식양성과, 교육 및 진료성장을 위한 기회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내 직원들은 공동선을 위한 기관의 이념에 자신의 역할을 인식해야 하고, 직원과 직원사이에 참다운 친교와 화합하는 정신을 육성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명을 다루는 봉사자로 사용자나 노동자간에 정당하고 서로 협력하는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 V. 21세기의 2000년 대희년을 향한 가톨릭 의료기관의 실천 이념과 운영

1.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 하느님의 의도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무질서하게 된 현실을 구약의 회년법을 통하여 묶여지고, 짐진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뿐 아니라 질병과 육체적 고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봉사직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성적 해방과 현실적 치유를 주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다. 또한 교회는 성서의 정

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 사명을 계승하여 왔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이 하느님께서 원하신 삶의 원상대로 되돌려주고 해방시켜주는 치유 봉사직을 수행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 의료기관은 구세사에 나타난 하느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사명을 오늘의 현실에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교회 가르침은 의료기관으로서 인간 해방을 위한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명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자에 대한 존엄성, 인간 품위 존경을 위한 윤리성 있는 의료제공, 예언적 사명의 증거로 현실 속에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과 관리 운영이 모든 이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2. 현재까지 가톨릭 의료기관이 운영하는데 있어 복음적 정신과 이념은 이상과 현실로 따로 떨어져 있었다. 의료사업에 치중하는 가운데 사회의 경제 구조에 따라 기관은 의료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관리 운영에만 남아있었던 우리의 현실은 대희년에 변화해야 할 것이다

### VI. 맺는 말

저는 1995년 10월 미국 시카고 전 교구장 버나드 추기경이 보건에 관한 교서 「희망의 표징」에서 “나는 가톨릭 보건의관의 비영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적했다. 나는 보건의무를 후원하는 수도자, 그리고 그들에게 헌신하는 평신도들의 꾸준한 봉사에 항상 감사하며 그분들의 헌신적 노력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한 구절을 제 마음에 새기며 2000년 대회를 맞이하면서 가톨릭 병원협회 회원 병원 여러분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톨릭 의료기관의 설립목적과 이념은 성서와 교회 가르침에 따른 의료 봉사직의 신앙이므로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명이 기관에 실천의 덕목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념은 기관의 복음적 사명이기에 기관에 봉직한 경영진, 의료진, 의료협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환자에게도

의료사도직의 사명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념과 병원운영을 복음적 가치에 두고 경영하기 위해 공동체로 일치하는 자세를 갖고 가톨릭 의료기관 서로가 긴밀한 협조로 한국 의료계에 영향 있는 모습(압력단체)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언직을 실천하기 위해 2000년 대회를 맞이하며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서 해방과 복음적 기쁜 소식을 실현시키기 위해 통일을 향한 의료지원 대책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